

# “인과는 피할수 없어”

랍인데 어찌 정치를 하겠소. 승려는 산문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할 일이며, 부처님을 도외시키고 범어사를 떠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사람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면서 적극 권유했지만 다 물리쳤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당시 미8군사령관인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이 공군대위로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실종되었다. 백방으로 시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범어사에서 위령재를 지내기로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벤 장군 내외를 대동하고 범어사로 내려왔다. 위령재를 마치고 돌아갈 때 동산 스님은 이대통령에게 대처승 정화에 대한 의지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정화의 시초가 되었지. 동산 스님의 덕화가 이승만 대통령을 감화시켰고 스님이 정화불사에 정진하고 계실 때 대통령이 무려 여덟 차례나 ‘대처를 한 왜승 승려들은 사찰에서 물러가라’는 유시를 내렸지. 이렇게 해서 정화운동이 성공하게 되었어.”

은사 스님의 마지막 작품을 적어주셨다. 스무하룻날 이 작품을 적어주시고는 스무 사흘날 열반하셨다면서 스승을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가득하다.

상서로운 풀은 좋은 운수를 만들고 瑞草生嘉運  
금 속의 꽃은 이른 봄을 가져온다 金花結早春

세수 팔순을 넘으신 백운 스님은 근현대불교 역사의 산증인이기에 활히 깨고 계신다. 동산 스님께서 갖은 필묵과 고난을 겪으면서 세운 종단이기에 후학들에게 열심히 정진하고 또 정진할 것을 당부할 뿐이란다.

“요즘 승속을 막론하고 살기가 참으로 좋아졌어요. 좋아진 환경 속에서 더욱 공부를 잘 해야 할 것인데 옛날보다 못해요. 육이오전쟁 때 살기가 궁핍하여 동래군청에 가서 식량을 구걸했어. 그랬더니 국수를 한 처방 주네. 그걸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때웠는데, 대중들이 설사를 하고 난리가 났어. 할 수 없이 옥수수를 얻어와 국수를 넣고 죽을 끓여서 먹었더니 설사가 가라앉네. 흰빛과 붉어가면서도 구도열은 뜨거웠고, 큰스님 모시고 열심히 정진했지.”

백운 스님은 범어사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대학에서 10년 넘게 강의했다. 한국불교사, 중국불교사, 인도불교사, 승만경, 법화경, 선문필요 등 해서 경전과 참선까지 두루두루 다 가르쳤다. 요즈음도 신도들에게 <선문필요>, <선관책진>, <금강경오가해>를 강설하신다. 17년간을 강주로 지내 온 스님은 강백담계 배우고 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출가자와 재가불자가 불교를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될 때 한국불교가 날로 발전해갈 것이라는 것이 스님의 일관된 생각이다.



백운 스님은 전남 영암 백련사에서 출가. 1952년 범어사에 와서 동산 스님을 모셨다. 범어사, 통도사 선원에서 수선안거. 영동 중화사, 김해 장유암 주지역임. 1971~1987년 17년간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강주를 지냄. 지금은 금정산 미륵사 회주이다. 저서로는 <양치는 성자> <백파 선사> <진목대사> <성월 대선사> <부설거사> <만암문집> <인곡문집> 등 다수 있다.

“요즘을 경을 읽기보다는 선이 수승하다고 해서 전부 그쪽으로 흐르는데 선교쌍수(禪敎雙修)를 이루어야해. 선에 관한 수행력이 있어야 경전을 해석하고 선문의 글을 이해할 수 있어. 백양사에서 경전 공부를 하고 범어사로 가서 동산 스님께 선 강의를 들었어요. 동산 스님은 선교를 두루 갖추고 있었기에 선문(禪文) 새기는 데 참으로 명쾌했지.”

스님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면서 한 번 새겨보란다.

고요히 앉은 곳에 차는 반이나 마셨는데 향기는 처음과 같더라. (靜坐處茶半香初)

미묘이 작용할 때 물 흐르고 꽃은 피더라. (妙用時水流花開)

“추사선생의 글인데 선방에 걸려있으면 더 좋은 글이지. 물 흐르고 꽃 피는 것이 바로 묘용인 것이라. 달리 특별한 것 찾지 마라는 것이지.”

방 안에서 차 향기도 음미하고 스님의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있는 사이 시간은 살같이 지나갔다. 바깥의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는 듯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도 들린다. ‘울라오면 내려가 기 싫어진다’는 스님의 마음을 알 것 같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35>한국불교의 석학 안진호 스님

안진호(1880~1965) 스님의 키는 152cm. 그런데 오른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 보는 사람마다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택시가 없고 자가용이 없는 시대에 있어서는 일등 자가용이 자전거 밖에 될 수 없었다. 서울 성북동 삼거리에서 폐달을 밟으면 해화동 로터리까지 5분도 안 걸렸다. “이렇게 빠른 세월도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면 웃는단 말이야.”

스님은 1880년 경북 예천 송흥에서 태어났다. 권상로 박사님과 동문수학으로 나이가 한 살 아래다. 16세에 예천 용문사에 출가하여 많은 불경과 설법을 듣고, 17세에 묘향산 월서문인 계허 스님에게 계를 받으니, 그 소문을 듣고 권상로 박사님께서 출가하셨다고 한다.

용문사 강원에서 9년 동안 이

다 보니, 이 내용을 안 한 보살님이, “내가 뒷돈을 대겠다” 하여, <영월실록> <약사경> <천지팔양경> <52종비밀불경>을 1937년 발간하고, <도서·선요> <심지광경>을 1938년에 발간하였다. 또 1939년에는 <다비문> <미특경> <고왕경>, 1940년에 <서장>을 내다보니 서울 장안에는 온통 ‘만(卍)상회’ 작품으로 꽂혔다. 그래서 1942년에는 마음먹고 <신편 팔상록>을 편집하였는데, 진실로 히트 작품이었다. 43년 <유마경> <법화경>, 53년 <절요>까지 거의 모두가 안진호 스님 작품이다.

1938년에는 <불교와 예수교>가 고경 스님 작품으로 나왔고, 1942년 <현수법수>가 윤희 스님 작품으로 출간됐으며, <임전의 조산불교>가 권상로 작품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월 21일, 법랍 69세, 세속 86세로 돌아가실 때 까지 만상회의 사주(社主)로, 불교의 대강사로, 불교의 식의 거장으로서 여기 저기 초청되어 강의를 하고 연설도 하였다.

필자와는 1962년 성북동 3거리에서 만나 <석문의법>과 <치문경>을 들은 것이 큰 인연이다.

“스님께 공부해 하고 싶습니다.”

“강사료를 똑똑히 내야지.”  
“살 한 가마니 값을 갔다 드려나, 내가 어린 학생한테 이런 거금을 받아서 되겠는가”하며 돌려주시고, “김포광 박사님과 김대은 스님 모시고 공부하러 가세” 하여 오장동으로 가서 냉면을 먹은 일이 있다.

“사람은 업(業)에 매여 몸을 받기 때문에 형무(刑累)를 면치 못한다. 아버지의 정가와 어머니의

### 명산대찰 구경 후 도제양성 위해 역경사업에 종사

력을 마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조선 땅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구경이나 하고 죽자”하고 8도강산 유람하여 명산대찰을 구경하고 나니, 그곳에서 불법이 깨쳐져 도제 양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경사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우선 전국을 일람하였으니 <전국 사찰일람표>를 1935년에 내시고, 1936년에는 취허 스님께서 낸 <불자필람>을 배경으로 <석문의법> 상·하 양권을 편집하였다. <초발심자경문> <정선치문>을 현토(懸吐)하고, <관세음보살본문품>을 현토 해석하였으며, <지장보살본원경> <보현행원품> <경허스님 참선록> <목련경·부모은중경> <석가여래십지행록> <미타경·팔대인각경> <현수심경> <행원품·보문품·보안장> 3경 합본을 1년 동안에 내고 보니 정신이 아찔하였다.

장사는 잘 되나 뒷돈이 부족하

40년대까지는 한국불교의 출판계를 스님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스님이 출판계를 이끌 수 있었던 특이한 점은 먼저 광고를 통해 예약을 하고, 다음에 책을 간행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독자 예측과 발행부수를 측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다. 따라서 관리와 자금 회전이 정확하게 돌아가 거의 실패 없이 출판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황을 이루던 만상회가 해방이 되면서 위축되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는 좌우익의 사상투쟁과 6·25한국전쟁의 영향이, 대내적으로는 대각회의 역경과 선학원의 출판사업이 가동된 데도 원인이 있다. 1948년 작품으로는 윤주일의 <반야심경>이 고작이고, 1957년 <절요>를 내놓고 그동안 출판했던 책을 재판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어찌되었든 스님은 1965년 정

피를 품 받아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수·화·풍 4대(大)가 일그러지면 높고 낮은 것이 찾아와 아침에 있다 저녁에 죽는 것이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마치 봄 서리, 아침 이슬과 같이 곧 있는 듯 없어지고, 언덕 위의 나무, 우물 속의 등나무와 같이 늘 명줄이 간들간들 오래 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곧 자신의 일임을 절감하시며 심각해 하시니 표정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애초로움을 느끼게 했다. <석문의법(禪門儀範)> 강의 때는 특히 ‘관음제문’에 있어서 소동파(蘇東坡)와 그의 누이 소소매(蘇小妹)가 서로 번갈아 읽으며 심약참회(十惡懺悔)·삼생, 도독질, 음행, 거짓말, 아첨하는 말, 악한 말, 이간질 하는 말, 탐심, 성냄, 어리석은 마음을 참회하는 것) 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논시율을 적시며 강의하셨다.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기우목동가 신간! 값 10,000원

그 뜻이 심오하여 번역하기 어려웠던 말게 자은 선사의 기우목동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바른 뜻이 드러나도록 번역하고, 간결한 결론과 주옥같은 선승으로 다시 보았다.

전강 대선사 범어집 달다 값 15,000원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영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영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 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 맞춤형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희 박사 직접지도

-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문)
-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 대한응변 중앙회 회장 역임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